



주님 공헌 대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나의 예물은?

어려서부터 고아가 된 소녀 앙리에뜨에게는 나이 어린 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어린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과로가 겹쳐 병으로 쓰러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병자성사를 주기 위해 신부님께서 병상을 찾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동생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그동안 주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도저히 어린 소녀의 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손마디는 울퉁불퉁 불거지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소녀의 두 손을 감싸 쥐고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앙리에뜨야! 하느님께서 너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시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이 두 손을 하느님 앞에 내어 보이거라, 이 아름다운 손만을...” (김윤덕 님 주 속의 성자 중에서)

동생들을 위해 주일을 지킬 수 없었던 슬픈 처지의 그 소녀에게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소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황금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죄송한 마음에,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그 고백과 그 마음이 예수님께 드리는 유향이요, 몰약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소녀는 자신만이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이미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공헌 대축일을 맞아 나는 무슨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세속적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깨끗한 마음은 순수한 황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욕망에 대한 포기는 썩지 않는 몰약일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결단은, 위로 향해 곧게 솟아오르는 향기로운 유향일 것입니다.

“그들은(…)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11)

주님 공헌 대축일을 연중행사로 보내지 말고, 내 마음 상자를 열어 내가 드릴 예물 목록을 챙겨 봅시다.



순교로 꽃피운 거제 지역의 뿌리 옥포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옥포성당의 긴 역사를 요약하면

거제의 옥포성당은 복합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옥포성당의 전신은 국산성당이다. 오랜 공소생활 끝에 1926년 5월 30일 진목정공소는 ‘국산성당’이란 이름을 가지고 거제 최초의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40년 동안 본당의 큰 역할을 해냈지만 소읍에 있던 국산성당은 점차 신자수가 줄어들고, 1966년에 장승포성당 관할 국산공소로 바뀌게 된다. 그러다 옥포에 대우조선이 들어서고 인구유입이 많아져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다. 1983년 7월 1일 옥포성당으로 다시 설립하고 초대주임에 배진구 신부가 부임했다.

이렇다보니, 옥포성당의 역사는 복잡적이고 헛갈리는 면이 있다. 첫 국산성당으로 치면 설립 93년을 지나 100년을 바라보고 있다. 재건된 옥포성당으로 헤아리면 설립 36년이다. 본당의 구성원들도 사뭇 다르다. 국산의 줄기는 시골의 오순도순 순박한 고령의 신자들이 대부분이고, 옥포의 줄기는 대우조선을 따라 전국에서 찾아온 활기 띤 젊은 세대 층이 많은 편이다.

천주당 국산성전

김정도 프란치스코(74세) 형제와 정철봉 알로이시오(73세) 형제를 통해 오래된 역사를 듣는다. 옥포성당의 역사라기보다 국산성당과 국산공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 살아 본 적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천주당’에 대해 말할 때는 힘을 더 실었다. 천주당은 국산성당, 국산공소를 거치며 그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청춘시절을 담당했던 성역이었다. 옥포성당 시대로 바뀌었지만, 늘 되돌아보게 된다. 다행히 2015년 현정근 안드레아·정순옥 율리아나 부부의 봉헌으로 그 자리에 성전이 건립되었고 안명옥 주교 주례로 헌당식을 올렸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어김없이 이 성전에서 미사가 있어, 그들은 이 미사에 꼭 참여한다. 다른 많은 신자들도 천주당 미사에 참여한다. 천주당에서는 베트남·동티모르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일미사도 거행되고 있으니 그 또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정철봉 형제는 어느 해 수해로 천주당 담장이 넘어가 사목회장과 다른 신자들이 땀범벅이 되도록 복구했던 때를 기억해 낸다. 지금 천주당은, 옛 건물의 들어가는 아치만 조금 남아있을 뿐 현대식 건물로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들어앉은 건물은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천주당 입구

천주당에는 거제천주교백주년기념비가 있다. 1880년 진목정에서 복자 윤봉문 요셉의 장인 진진보 요한이 윤봉문의 부친 윤사우 스타니슬라우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980년 100주년 맞았지만, 옥포본당 설립 후 1985년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제도 천주교회의 발상지이며 순교자의 유적지 국산성당의 역사를 기렸다.

집집마다 쌀을 모아 옥포성당 터를

정철봉 형제는 김영제 신부 때, 매주일 아침이 되면 신자들 가정마다 성미를 모으러 뛰어다녔던 기억을 벅차게 꺼냈다. 김정도 형제도 맞장구를 쳤다. 국산성당으로는 마지막 제7대 김영제 요한 신부가 언젠가는 큰 성당을 짓게 될 것이라며 쌀을 모으게 했다. 이렇게 애써 모은 돈이 마중물이 되어 지금 옥포성당이 있는 터를 사게 되었다. 당시에 대우조선은 생각지도 못한 때였는데 그 신부님이 대단했다고 존경심을 크게 드러냈다. 병환으로 돌아가시지만 앓았다면 하며 그리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 두 사람은 공소에서 청년회활동 활발하게 했다. 공을 차고 놀았으며, 봉사할 일에는 몸을 아끼지 않았다. 성탄에는 연극공연을 하여 신자들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때는 할머니들이 직접 제병을 만들었는데, 복사하고 나면 제병 찢고 남은 쪼가리를 먹고 좋아했다. 명절을 맞춰 고향에 오는 청년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회비를 걷고 담뱃값도 아껴 모은 돈으로 비새는 공소를 고치고 제대도 손질했던 일이 생생하고 그림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도시화되어 사라진 것들이 아쉽기만 하다. 어릴 때부터 몸담았던 땅의 기운이 아직도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듯하다.



거제 천주교 백주년기념비

순교와 복음정신으로 살아있는 옥포성당



옥포성당 관할로 품고 있던 윤봉문 요셉 순교자 묘소는 2013년 4월에 지세포로 이장해 새롭게 성지가 조성되었지만, 순교정신이 깃든 땅과 거제 지역 복음의 발상지에 대한 옥포 신자들의 자부심은 여전히 탄탄하다.

이 정신으로 국산시절부터 이어진 터줏대감 신자들과 옥포 대우조선으로 이주한 신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령이나 출신이나 생활방식으로 보아 신자들의 층이 다양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일군다.

옥포성당은 지역 특성상 들고나는 인구가 많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여행객들도 많이 드나드는 성당이다. 국산성전에서의 미사에 참여하는 이주민만이 아니라 본당에도 다른 외국인들이 매주 여남은 명은 찾을 정도로 글로벌한 분위기이다. 신자들은 내부 공동체의 조화 뿐 아니라 언제나 열린 자세다.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솔선수범하여 브레시디움 2개씩 돌아가며 매주 선교를 나간다. 처음에는 성당 앞에서 차 한 잔 대접하자며 시작했던 것이 조금 더 조금 더 나가서 차 대접과 홍보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 보태어 분기에 한 번씩은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으면 새 교리반을 열다보니 예비자교리반이 8개가 있고 수시로 세례식을 치른다. 거제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졌던 터전에서 옥포성당 신자들은 신구조화를 이루며 이웃과 일치를 이루며 신앙을 다지고 있다.

세계 교회의 관심과 노력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세계 교회가 현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권, 평화, 생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는 사도적 전통 위에서 예언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적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간 대화가 곧 평화의 문제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 신학 위원회의 노력이 현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교황청 성서 위원회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평화의 새로운 여장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와 세계 교회 협의회(WCC)의 만남

지난 12월 10일 “종교간 연대를 통한 상처 입은 인류에게 봉사”라는 주제로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와 세계 교회 협의회(WCC)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간 <종교간 혼인>(1994-1997), <종교간 기도와 영성>(1997-1998), 그리고 최근의 <평화 교육>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곧 종교간 대화는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평의회 의장 미구엘 아우소 추기경은 모임의 모두 발언에서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종교간 연대가 필요하며, 각 종교는 그러한 사명으로 불리었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모든 종교는 인류에 봉사하는 소명, 곧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봉사 소명은 종교간 연대를 통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제 종교들은 일치와 치유보다는 분열과 상처를 가혹하리만치 재촉하고 있는 듯합니다. ‘종교간 연대를 통해 상처 입은 한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이유’를 각각의 신앙 소명에서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멀리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그리스도교인 11명을 살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슬픔의 날이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라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연대를 통한 대화와 치유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라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교황 프란치스코)



국제 신학 위원회(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설립 50주년

국제 신학 위원회는 교황청 신앙 교리성 산하 기관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이후 공의회 정신의 실현을 위한 제1차 주교 시노드(1967년)에서 그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교황 바오로 6세의 명령으로 1969년 설립되었습니다.

국제 신학 위원회는 세상과 교회의 상황을 신학의 자료로 삼아 정통 교리 전통 위에서 하느님과 세상간의 대화를 펼쳐 내고자 합니다. 신학 위원회는 결정적으로 '신학과 교도권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신학 위원들과의 만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신앙 교리성 장관으로서 국제 신학 위원회의 수장이었던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축하 메시지를 인용하여, '오직 겸손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는 사랑 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5년 대단히 중요한 두 신학 문헌이 발표되었음을 상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문헌은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 드러난 공동합의성(Synodality)'으로, 삼위일체적 친교와 대화에서 비롯되는 공동합의성에 관한 신학적 명료성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는 삼천년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지표가 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상적인 문헌은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식별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헌은 전 세계의 공동선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서는 신학자들에게 영성적 삶과 교회적 삶이 바탕이 되는 '아름다운 신학'을 제안하셨습니다. 신학자는 오직 '지성의 노예'가 아니라, 신앙으로 양육되는 교회 삶의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문헌을 특별히 언급한 교황님의 관심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교황청 성서 위원회의 새로운 문헌: "인간은 무엇입니까?: 성서 인간학적 여정"

교황청 성서 위원회는 1902년 교황 레오13세 회칙<섭리의 하느님>에 의해 설립된 추기경단 자문 위원회입니다. 성서 위원회는 성경 문제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근본을 옹호하고 변호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위원회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제시하고, 성경 해설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르치고 변호하는 임무'에 충실하였던 교황청 성서 위원회가 지난 12월 19일 새로운 문헌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헌은 지금까지의 성서 위원회의 기류와는 사뭇 다른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교황청 성서 위원회의 소명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성찰하고, 성경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은 지금 현시대가 당면한 인권, 난민, 이민, 생명 경시 등의 문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성서적 성찰'입니다. 성서 위원회 간사인 피에트로 보바티 신부는 교황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묵시록에 이르는 여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문헌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 다른 창조물과의 관계 안에서의 인간, 관계적 현실(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등)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헌은 인간의 위대함과 동시에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구원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헌의 목적은 인간을 둘러싼 파괴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문헌이 하루 빨리 국어로 번역되어,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과 삶의 '충실하고 친절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림



교구장 동정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6일(월) 19:30

장소: 교구청

사제 서품식

일시: 1월 7일(화) 14: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꾸르실료 강의

일시: 1월 10일(금)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200차 ME 주말 미사

일시: 1월 12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1@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교구/본당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6일(월) 19:30

장소: 교구청

문의: 성소국 055·249·7061

교구성경봉사자 집중교육 3일

일시: 1월 6일(월)

장소: 교구청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사제 서품식

일시: 1월 7일(화) 14: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사제 은퇴식

허성학 아브라함 신부

일시: 1월 12일(주일) 10:30

장소: 태평동성당

황봉철 베드로 신부

일시: 1월 12일(주일) 10:30

장소: 창녕성당

위원회/기관/단체

230차 여성꾸르실료

일시: 1월 9일(목)~12일(주일) 3박4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꾸르실료 055·249·7113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채용분야: 주방 직원 1명 (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신부 추천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마감: 1월 7일(화) 15:00 (방문, 우편, e-mail / 우편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055·221·1891~2, cecomasan@gmail.com

수도회

성 마리아 재속회 성소모임

일시: 2020년 1월 12일(주일) 14:00

대상: 재속회에 관심있으신 미혼여성
(제3회와는 다름)

장소: 전화상담 후

문의: 010·6688·3863, 010·9437·5903

2020년 살레시오 수도회 겨울 성소대피정

대상: 예비 고3, 성인 일반(만 33세 이하)

일시: 2020년 1월 31일(금)~2월 2일(주일)

장소: 돈보스코청소년센터(서울 여의대방로 65)

문의: 010·5159·3949, 010·3894·1332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과정

일시: 2월 5일(수)~9일(주일)

장소: 서울 베네딕도회 피정의 집

지도: 허성준 신부, 이경희 수녀

회비: 36만 원(36명, 1인실)

문의: 최안나 010·4731·2468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접수가함)

일정: 1월 13일~15일, 1월 17일~19일(한라산),

2월 1일~3일, 2월 7일~9일(한라산),

2월 13일~15일, 2월 22일~24일(한라산)

문의: 02·773·1463, 064·756·6009

기타

서울 삼성산성지 2박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시: 1월 10일(금) 18:00~12일(주일) 15: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강사: 한철호 신부, 박효철 신부 등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발: 마산역 김안과 앞 (10:30 출발)

문의: 010·7375·4600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해외선교)

일시: 1월 12일(주일) 14:00~17:00

대상: 만23세~만38세, 남·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품격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3월 28일 청년 이스라엘 순례(1980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 349 만원

4월 21일 이스라엘 요르단 419 만원

4월 28일 성모발현지 410 만원

본도여행사 02.852.852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일림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02·741·3071/ 010·7740·3071

2020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070~1
www.jjsce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파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월 31일~2월 2일, 2월 11일~13일, 2월 19일~20일,
2월 27일~29일, 3월 5일~8일, 3월 11일~13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1일(월)~2020년 2월 7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청년들을 위한 <윤미숙의 그림 에니어그램>

일시: 1월 17일(금) 19:00~19일(주일) 09:00
장소: 경남 고성 환대의집
대상: 20~45세 미혼 남·녀(비신자포함)
참가비 및 문의: 3만 원 / 010·4140·0502

2020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 서품식

일시: 1월 7일(화) 14: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주례: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 첫미사 |



서시몬 시몬
진영성당
1월 9일(목) 19:30



조현석 엑스수페리오
석전동성당
1월 9일(목) 19:30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덕산동성당
1월 8일(수) 19:30



김동윤 올리아노
호계성당
1월 8일(수) 19:30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3급 자격과정 안내

주관: 마산교구가톨릭상담심리학회
과정: 3급 1·3주 (토)09:00~16:00 3월 7일 (토) 개강
2급 2·4주(토)09:00~16:00 3월 14일 (토) 개강
장소: 함안 '우리농 교육장'
수강료: 30만 원(하나은행 160-890028-51604 (재) 천주교마산교구유지재단)
마감: 2020년 1월 17일(금)
문의: 070·8877·3217, mscps@hanmail.net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택
방법: 우편과 이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마감: 2020년 1월 31일(금) 까지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오륜대 토요교회사 강좌

개강미사: 3월 7일(토) 14:00
기간: 3월 7일~10월 31일 매(토) 15:00~17:00(60시간)
수강료: 20만 원 ※선착순 60명에 한함
한윤식 신부: 사건별로 보는 세계 교회사
전수홍 신부: 슬라이드로 보는 세계 교회사
한건 신부: 한국 교회사
문의: 051·515·0030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5686·1362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월 6일(월) 19:00	월남동성당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시편27,8)	김수진 신부(요한, 부산교구)	김수진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1월 6일(월) 19:00	반송성당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홍장(다테오, 삼성산)	정종규 신부(클라로)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목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월 12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3/29, 4/20, 5/6(289만원) ◆ 이스라엘 9일 3/30(299만원) ◆ 이태리일주 9일 3/12(27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20년 4월 2일, 인솔자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	---	--	---



수도지

드러내시면서...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수녀원



오늘 우리는 동방의 세 박사가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찾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경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경축합니다.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나에게 당신을 주님으로 드러내셨으며, 나는 언제 그분을 주님으로 경배하였나?’

한 가지 일이 기억납니다. 성대서원(종신서원)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청원하는 기간이 다가왔을 때, 저의 내면은 공동체에 대한 판단, 불만,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성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실상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성소가 이곳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Yes, No로 확실히 알려주시라는 기도를 드린 채 청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원장수녀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성대서원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고, 저의 상태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원한다면 살겠다는 의미로 성대서원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후 원장수녀님께서 자문회의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자문회 결정은 저의 성소는 있는데 성대서원은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상 외의 결과에 충격을 받은 저는 ‘성소가 있다’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면서 자문회를 통해 주님께서 나의 성소가 있다는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였고, 자문회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성대서원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이 몹시도 모욕적이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성무일도를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요?’라고 격노하며 마음속으로 고함을 고함을 질러대는데, “자기가 마치 옳은 일인 한 백성이거나 하듯이”라는 시편 구절이 그와 동시에 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제 바로 곁에 예수님께서 저와 똑같이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박혀 계신 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와 똑같은 처지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시는 당신의 자비, 형제들의 자비에 저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양 처신한 저의 근원적인 오만과 교만. 그것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자리, 그곳이 주님께서 찾아와 당신 몸을 누이신 구유이며, 제가 땅에 엎디어 저의 주님임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경배 드린 그 장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지금도 크게 작게 일상 안에서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때론 드러내시며... 때로는 감추시면서...



제 1 독 서 이사 60,1-6
화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 독 서 에페 3,2,3-5-6
복 음 마태 2,1-12

주일 진례